

석유비축률 55% 불과 “사상최저”

석유공사, 8월 말 7575만배럴 기록 ... 37일간 사용가능 23일분 부족

국내 석유 비축률이 저장가능량 대비 55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, 8월 말 국내 석유 비축량은 7575만배럴로 비축기지의 저장가능량 대비 비축률은 역대 최저치인 55%로 집계됐다.

현재 비축량을 하루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3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, 비상시를 대비해 6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도록 한 정부 기준에 비해 23일이나 부족한 수치이다.

석유비축률은 1998년 85%를 기록한 이후 2000년 72%, 2003년 75%, 2006년에는 63% 등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.

하지만, 석유공사는 1억3770만배럴의 저장용량 가운데 34%를 민간에 임대해 2008년에만 502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등 수익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김태환 의원은 지적했다.

김태환 의원은 “공사가 공사 수익 확대에 눈이 어두워 국가안보와 직결된 석유비축이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9/10>